

<서사>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내실새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내려오니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라
 일장검(一長劍) 비기 차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여기 진목(鎭氣)이야 대마도(對馬島)를 구어보니
 바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허 있고
 아득한 창파(滄波)난 긴 하늘과 한빛칠쇠.

<본사1>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역(思憶)하고
 어리 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鮮元氏)를 애다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하야 천지(天地)에 둘러싸니
 진실로 배 아니면 풍파 만리(風波萬里) 밧기 어내 사이(四夷)
 옛볼넌고
 무삼 일 하려 하야 배 못기를 비롯한고
 만세천추(萬世千秋)에 가업산 큰 폐(弊) 되어
 보천지하(普天地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나다.

<본사2>

어즈버 깨다라니 진시황(秦始皇)의 타시로다
 배 비록 있다 하나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일본(日本) 대마도(對馬島)로 빈 배 절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듯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그대로 드려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난당적(難當賊)을 기쳐 두고
 통분(痛憤)한 수목(水木)이 화하(華夏)에 다 밋나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마나 어더 내어
 만리 장성(萬里長城) 놓히 사고 몇 만년(萬年)을 사도면고
 남대로 죽어 가니 유익(有益)한 줄 모라로다
 어즈버 생각하니 서불(徐佛) 등(等)이 이심(已甚)하다
 인신(人臣)이 되야서 망명(亡命)도 하난 것가
 신선(神仙)을 못 봤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주사(舟師)이 시름은 전혀 업게 삼길렀다

<서사>

미천하고 늙은 몸을 주사로 보내시므로
 을사년 여름에 진동영에 내려오니
 변방의 중요한 땅에 병이 깊다고 앓아 있겠느냐
 긴 칼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혼자 올라서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바람을 따르는 누런 구름은 멀리, 가까이 쌓여있고
 아득한 푸른 물결은 긴 하늘과 같은 빛이구나.

<본사1>

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옛날과 지금을 생각하고
 어리석고 미친 마음에 현원씨를 원망하노라.
 큰 바다가 아득하게 넓어 세상을 둘러 싸고 있으니
 진실로 배 아니면 바람과 파도가 심한 만 리 밖에서 어느
 사방의 오랑캐가 옛볼 것인가?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시작하였는가?
 오랜 세월에 끝없는 큰 폐가 되어
 온 세상에 만백성의 원한을 조장하는구나

<본사2>

아, 깨달으니 이는 진시황의 탓이로다.
 배가 비록 있다 하나 왜를 생기게 하지 않았다면
 일본 대마도로부터 빈 배가 저절로 나올 것인가?
 누구 말을 믿어 듣고 총각과 처녀를 그토록 데려다가
 바다의 모든 섬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적을 남겨 두고
 원통하고 분한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 다 미치게 하였는가
 불로장생약을 얼마나 얻어 내어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 만년을 살았던가?
 남과 같이 죽어 가니 유익한 줄 모르겠다.
 아, 생각하니 서불의 무리가 너무 심하구나
 신하게 되어서 망명을 할 수 있는가?
 신선을 못 봤거든 빨리나 돌아왔으면
 주사의 이 시름은 전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본사3>

두어라 기왕불구(既往不咎)라 일너 무엇하로소니

속절업산 시비(是非)를 후리쳐 더더 두자

잠사 각오(覺悟)하니 내 뜻도 고집(固執)고야

황제 작주거(皇帝作舟車)난 윈 줄도 모라로다

장한(張翰) 강동거(江東去)에 추풍(秋風)을 만나신들

편주(偏舟) 곳 아니 타면 천청 해활(天淸海闊)하다

어내 흥(興)이 절로 나며 삼공(三公)도 아니 밧골

제일 강산(第一江山)에 부평(浮萍) 갇한 어부생애(漁父生涯)를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대 부쳐 단힐난고

<본사4>

일언 날 보건댄 배 삼긴 제도(制度)야

지묘(至妙)한 덧하다마난 엇디한 우리 물은

나난 닷한 판옥선(板屋船)을 주야(晝夜)의 빗기 타고

임풍 영월(臨風映月)호대 흥(興)이 전혀 업난 게오

석일(昔日) 주중(舟中)에는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터니

금일(今日) 주중(舟中)에는 대검 장창(大劍長槍)뿐이로다

한 가지 배언마는 가진 배 다라니

기간(其間) 우락(憂樂)이 서로 갖지 못하도다

<본사5>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신(北溟)을 바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랄 천일방(天一方)의 디아나다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에 디라마난

국운(國運)이 불행(不幸)하야 해주 흥모(海味興謀)에 만고수(萬古壽)를 안고 이셔

백분(百分)에 한 가지도 못 시셔 바려거든

이 몸이 무상(無常)한달 신자(臣子) | 되야 이셔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몬 되압고 늘거신들

우국 단심(憂國丹心)이야 어내 각(刻)애 이즐넉고

<본사3>

생각을 그만 두자, 이미 지난 일을 허물하지 않아야 하는데
말해 무엇 하겠느냐.

부질없는 시비를 팽개쳐 던져 두자.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니 내 뜻도 고집스럽구나.

(이제 다시 생각하니)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이 그릇된
줄 모르겠다.

장한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을 바람을 만났다 한들

작은 배를 타지 않았다면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고 하더
라도

어떤 흥이 절로 날 것이며, 삼공과도 바꾸지 않을

제일강산에 부평초 같은 어부의 생애를

앞사귀처럼 작은 배가 아니면 어디에 의지해 다닐 것이냐.

<본사4>

이런 일을 보건데 배를 만든 제도야

지극히 묘한 듯 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는

나는 듯한 판옥선을 밤낮으로 비스듬히 타고

바람과 달을 느끼며 시를 읊되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과거 배에서는 술상이 어지럽게 흩어졌더니

오늘날 배에서는 무기들 뿐이구나.

배는 같은데, 가진 바가 다르니

그 사이에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구나.

<본사5>

때때로 머리를 들어 북극성(=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며

시대를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구석에 떨어트
린다.

우리의 문물이 한 당송나라에 지지는 않겠으나

국운이 불행하여 바다 도적의 음흉한 모략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고 있어

(그 부끄러움의) 백분의 일도 못 씻어 버리거든

이 몸이 변변치 못하지만 신하가 되어 있다가

곤궁과 영달의 길(=임금과 신하의 길이 달라 못 되시고 늙
었다 한들,

국가를 걱정하고 충성하는 마음이야 어느 시각에 잊었겠
는가?

<본사6>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 난 노당익장(老當益壯) 하다마난

도고마난 이 몸이 병중(病中)에 드러시니
설분신원(雪分新元)이 어려울 닷 하건마난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좇고
발 업손빈(孫賓)도 방연(龐涓)을 잡아거든
하물며 이 몸은 수족(手足)이 가자이고 명맥(命脈) 이어시니
서절구투(西節句頭)를 저그나 저흐소나

비선(飛仙)에 달려드러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九十月) 상풍(霜風)에 낙엽(落葉) 가지 헤치리라

칠종칠금(七縱七禽)을 우린달 못 할 것가

<결사>

준피도이(羣波島夷)들아 수이 결항(乞降) 하야사라.

항자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태 섬멸(殲滅)하라
오왕(吾王) 성덕(聖德)이 옥병생(欲生) 하시니라

태평 천하(太平天下)에 요순 군민(堯舜君民) 되야 이서
일월 광화(日月光明)난 조부조(朝復朝) 하얏거든

전선(戰船) 타던 우리 몸도 어주(魚舟)에 창만(摐摐)하고

추월춘풍(秋月春風)에 높히 베고 누어 이서
성대(聖代) 해불양파(海不揚波)랄 다시 보려 하노라

<본사6>

의롭지 못한 것에 분노하는 건장한 기운은 늙어 갈수록 점
점 싹싹해지고 있건만,
조그만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리고 창피스러운 일을 씻는 것
이 어려울 듯 하건만은

그러나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의를 멀리 쫓아버리고
발 없는 손빈이 방연을 잡아냈거늘
하물며 이 몸은 손발을 가지고 있고 살아 있으니
쥐가 도둑질 하고 개가 남의 것을 훔치듯 하는 것을(=왜놈
들을) 조금이라도 두려워 하겠느냐?

나는 듯 빠른 배에 달려들어 선봉을 무찌르면
9월~10월 서리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같이 헤치리라(=왜적
을 물리치리라)
일곱번 붙잡고 일곱번 풀어주는 일을 우리라고 못 하겠
느냐

<결사>

꾸물거리는 저 섬나라 오랑캐들아 빨리 항복하고 용서를
빌어라.

항복하면 죽이지 않으니 너희를 굳이 섬멸하겠느냐?
우리 임금의 성스러운 덕이 너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구
나.

태평한 천하의 태평한 시대의 백성이 되어
해와 달의 빛(=임금의 덕)은 아침마다 반복되거늘(=태평 성
대가 지속되거늘)

전쟁에 쓰는 배를 타던 우리 몸도 고깃배를 타고 늦도록 노
래하고

가을 달 봄 바람에(배개를) 높이 베고 누워
태평성대에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는 것(=세상이 평안한
것을) 다시 보고자 하노라.